

한발짝도 못나간 군공항 이전, 녹슬어가는 나주 SRF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해 넘기는 광주·전남 지역현안

민선 7기 광주·전남도는 지난 1년 동안 해묵은 지역 현안을 속속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쌓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올 한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양한 숙원 사업을 풀어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광주시=광주에서 여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군공항이전 사업,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해를 넘기는 사업으로 우선 꼽힌다. 여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산구 여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갖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협약과 그 이듬해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2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주)호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호반 측이 올 초 막판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7월, 3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주)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0년 만에 여등산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서진건설 측이 협상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무산됐다.

이윤섭 광주시장장은 최근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이행 담보금 성격의 유가증권 48억원의 불수를 피하려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보

여등산 관광단지 조성 뼈격

민간공원 검찰수사로 늦어져

혁신공항 건설 풀어야 할 숙제

전남 지역 의대 유치도 과제

중금 불수를 둘러싼 서진건설과의 법정공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는 여등산을 시비를 들여 개발하는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 나설지를 놓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관광단지 내 상가시설 면적을 제한, 사업성이 떨어진다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은 만만찮은 과제다.

2016년 무안-해남-신안 3곳이 국방부 작성 검토를 거쳐 적정 후보지로 좁혀졌으나 해당 기초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제자리 걸음이다.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 반발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3년째 미루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애초 연말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대상지 우선협상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었



수 년째 지지부진해 온 광주 군 공항(왼쪽) 이전이 올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오른쪽) 가동 문제도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최종 합의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수 년째 지지부진해 온 광주 군 공항(왼쪽) 이전이 올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오른쪽) 가동 문제도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최종 합의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으나 중앙공원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의욕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은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시는 봉산-신용-마복-중앙 2지구·일곡-운암산 공원 등 6개 공원 우선협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이어, 금명간 수락-중앙-중앙 1지구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 초 호전 1·2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송암공원 우선협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끝으로 10곳의 우선협상자와 협약을 마무리 짓고,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6월 말 이전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현안 최우선 순위인 혁신공항

조기 건설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혁신공항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혁신공항 건설 계획을 반영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까지 선정했음에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혁신도가 연간 45만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점을 감안, 공항을 개발해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전남의 미래 개발 비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재차 정치권과 정부에 편지를 보내 조속한 공항 건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해묵은 현안이기도 하지만, 전남도의 절

실한 과제는 의대 유치다. 전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데다, 초고령화로 인한 질병 부담률과 원정 진료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입장 등으로 여태껏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목포지역의 경우 지난 30년 간 숙원으로 지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 지역 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1990년부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순천도 한때 의과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 해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갈 길이 멀다.

당장, SRF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합의서에 담아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전방위 외교전 통했나... 北 '크리스마스 선물' 조용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 메시지 靑 "시진핑 내년초 방한 확정적"

청와대는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D데이인 25일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핵화 대화의 진전 없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까지 이어진다면 비핵화 시계가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상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가동하고,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SPY-1D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출동시키는 등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실제로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비핵화 대화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현재까지 비핵화 대화를 끌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레드라

인'을 넘는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이 도발을 결단하고 미국이 강경 맞대응에 나선다면 문 대통령의 '축진지역'은 더욱 험난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이 24일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 청두(成都)를 방문하기에 앞서 빼듯한 스케줄을 쫓아 하루 전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도 북미 간 긴장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은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D데이를 앞둔 북한에 우회적으로 도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같은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청와대 일

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확률은 낮아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까지 나서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만큼 북한이 동북아 정세를 격랑으로 몰아넣을 부담을 감수하고 무력시위를 감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선물'의 대상인 미국의 현지시간으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탓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시기 등은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이 내년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김은영의 '그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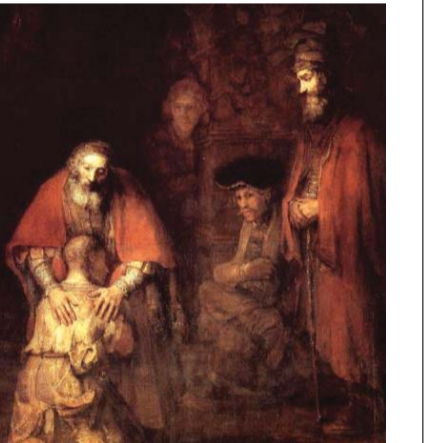
(295) 탕자의 귀환

연말이면 평생 집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귀향이라도 하고픈 마음이 든다. 마치 오랜 시간 길을 잃고 방황했던 탕자를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집으로 바빠 돌아가고 싶은 바람처럼 말이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헨리 나우엔(1932~1996)의 '탕자의 귀향'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한 점을 실마리로 길고도 먼 영적 탐험을 나선 여정을 담은 책이다. 신부이자 작가인 저자는 성경 속 누가복음 15장의 강렬한 비유를

고스란히 화폭에 옮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작은 아들의 귀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큰 아들의 서운함, 아버지의 동정심 등에 차례로 감정이입하였다. 책을 읽는 동안 저자처럼 차례로 책 속 등장인물의 감정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렘브란트(1606~1669)의 '탕자의 귀향'(1669년 작)은 한때 암스테르담 시민 전체가 초상화 주문을 위해 달려들었을 정도로 성공했던 렘브란트가 실패와 환멸, 슬픔을 지나 이윽고 도달한 인생의 황혼기에 그린 작품이다. 방탕에 있어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는 연민의 몸짓으로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 이들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서있는 두 여인과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큰 아들과 또 한 남자의 모습마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렘브란트 작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부모 된 자 이리도 오래지만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식들의 태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다시금 성찰해본다. 성탄절 즈음이어서인지 이 한 점의 그림이 수많은 일상의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파스한 위로와 의미가 다가온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HNT 하나투어

겨울여행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여행

여행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동남아/대만/남태평양

갈

savepack PGPF40_A

광4일·홀리데이인호텔

840,000원-

대만

savepack AVPF13_0

대만·호이안 4일

793,000원-

보라카이

savepack APF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거리조트

649,000원-

세부

savepack APFF01_A

세부 5일 일거리조트

734,000원-

하미산

savepack CIPF83_N

하미산 5일, 6일 특급호텔

500,000원-

장가계

savepack CIPF01_1/2

장가계 4일, 5일

599,000원-

방콕

savepack AAFP10_0

방콕·피타야 5일, 6일

796,000원-

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FF03_3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95,000원-

하노이

savepack AVPF10_A

하노이/하롱베이 5일, 6일

1,050,000원-

치앙마이

savepack AOPF01_A

치앙마이/치앙라이 5일, 6일

1,150,000원-

강오스

savepack ALPF01_A

강오스 5일, 6일

1,050,000원-

중국

상해

savepack CCPF01_2

상해·추가각 4일, 5일

329,000원-

상해/황산

savepack CCPF06_1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Fair Price | 안전결제 | 단체맞춤여행 |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 광주충장점 | 062)228-1199